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9일 화요일 음 1월 26일 (3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9°C, 낮 최고기온은 14-15°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오전, 강수 확률, 오후. Includes percentages for rain and cloud cover.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해돋이 06:53, 달뜨기 04:20, 해질 18:37, 달짐 14:23, 물때 20:30, 간조 01:45, 15:13.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내일, 맑음, 7/15°C, 모레, 흐리고 비, 10/17°C.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월드뉴스

코로나19에 영국서 뜬 '건강음식' 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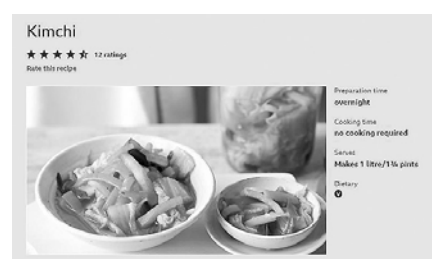
후유증 극복에 도움된다 입소문

지난해부터 영국에서는 김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좋은 건강음식이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김치가 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관계자가 펠트로의 식이요법이 과학적이 지 않은 조언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역으로 보면 김치가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국 아이뉴스는 3일 '소화 잘되는 한국 스낵 김치가 어떻게 봉쇄 중 영국에서 인기 음식이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치가 속 편한 음식을 찾는 이들이나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건강 생활과 전통적인 요리법에 대해 관심이 늘며 인기가 커졌다고 말했다.

아이뉴스는 영국인 팻 빙리가 운영하는 김치판매업체는 판매량이 지난해 첫 봉쇄 이후 '미사일 같은' 속도로 증가해서 11월에는 3월 대비 8배에



BBC 홈페이지에 소개된 김치.

달했다고 전했다.

BBC는 홈페이지 요리법 코너에 김치 담그는 법을 올려놓고, 더 타임스는 길었던 지난 겨울 긴 봉쇄기간에 필진들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면서 김치를 담그다 실패한 이야기도 냈었다.

최근 주영 한국 대사관은 관저 요리사가 담근 김치를 의회, 외교부 등의 한국 관련 주요 인사 50여명에게 선물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한 상원의원은 김치와 함께 보낸 요리책을 보며 부인과 함께 직접 김치를 담가봤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한라칼럼



이윤형 선임기자

실로 법 제정 21년 만이다. 사건 발생으로 치면 73년 만에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 나는 봄이었다. 애기뿔꽃만 보아도 아픔과 서러움, 원통함이 북받쳐 올랐던 봄날이었다.

지난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국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이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하면서 추도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여전히 지연된 정의다

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그 후 3년 만에 그토록 바랐던 특별법이 개정됐고, 제주에 봄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은 선부른 봄이다. 원통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와 가족의 억울함, 73년 아픈 세월이 돈을 얼마 받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한순간에 풀릴 수 있는 일인가, 혈육을 잃은데 대한 배보상이 결정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유족들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진정한 봄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에 다를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나 마찬가지로 서양 법언이 있다. 그럼에도 지연된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비록 70여년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과정은 진통이 따를 것이다. 때로는 역

사의 후퇴, 백래시(backlash)도 우려된다. 4·3특별법이 처음 제정 이후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4·3특별법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9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제정 공포됐다. 당시 여대야스 탓에 특별법 제정 과정은 험하고 험난했다. 범여 의석이 180석에 육박하는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가 힘든 것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 발생 50여년 만에 이뤄진 4·3특별법 제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법적, 제도적 전기가 됐다.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이 뒤따르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반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제동을 걸었다. 4·3은 국가추념일 지정 이외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20년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다.

4·3특별법 국회 통과와 명예회복의 기나긴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유족과 도민사회의 바람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억울한 희생과 감옥살이에 대한 배보상은 비극적인 4·3에서 인권회복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가치이자, 국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다.

이제 진정한 사월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더욱 다져야 한다. 배보상 등은 앞으로 세부안 등이 드러날 것이다. 추가 진상조사의 주체·방법, 수형인 재심 문제, 4·3사건의 정명 등 갈 길이 멀다. 앞으로 유족과 도민사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4·3의 완전한 해결의 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시 발목 잡히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실현될 길이 열린다.

열린마당

농작업 사고 사전 예방합시다



강경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장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2017년 92건, 2018년 81건, 2019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 중 경운기와 파쇄기, 예초기 손으로 사고가 높은 편이다. 사고유형으로는 잔가지 파쇄기 이용 부주의, 농용굴삭기 전복, 트랙터 전복 등으로 인한 중경상뿐만 아니라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고 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구입 비용을 줄이고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파쇄기 등 12종 138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이다. 농업인에게 호응이 높고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센터는 농기계전문관을 배치해 농기계 안전사용 및 조작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리 및 대처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를 가입해 농작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스스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농작업 사고는 농업활동 및 경제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물론 가족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전 안전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오지웅 서귀포시 세무과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받으므로 나눠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세금이다.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인데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승용차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곱해 1년치 세액을 산정(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부가)하는데 납세의무자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기준 최고 9.15%까지 공제받는 연납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확실히 덜 낼 수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1월·3월·6월·9월 중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0341)를 통해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3월2-31일)할 수 있다. 신고납부 시기가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으며 1월 신고납부시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받는다.

또한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변동사유로 행정 처리가 이뤄졌다면 세정공무원이 알아서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해 환급도 해 준다. 그리고 연납한(1월, 3월) 납세자에게는 납세편의 차원에 매년 같은 시기에 연납분 납부서를 보내주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연납을 희망할 경우에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요즘 그리고 현 시중금리를 생각한다면 이 연납제도 이용을 권하고 싶다. 연납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납세자와 1월 연납 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이라고 한 번의 신고납부도 세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는 건 어떨까 싶다. 나만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후회가 없도록 이번 3월 연납 시기 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상운.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원터프린스, 미니향, 하례조생 등 다양한 품종 소개.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등 다양한 품종 소개.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유라 (1~5년생) 등 다양한 품종 소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석파농산 등 다양한 품종 소개.